

네일 어깨에 ‘박빙의 3위 싸움’ 희망 전다



오늘 창원 NC戰 선발 특명…구창모와 리턴매치

LG와 1리차 3위 수성 분수령…커리어하이 찍고 에이스 증명
시즌 마지막 4연전 포문, ‘불펜 부담 최소화’ 긴 이닝 소화 관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3위 수성이 ‘에이스’ 네일의 어깨에 달렸다.

KIA는 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와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펼친다.네일이 선발 투수로 나선다.

7일 기준 KIA는 76승 62패 2무, 승률 0.551로 3위다. 4위 LG는 77승 63패 1무, 승률 0.550이다. 게임차는 없다. 승률에서 불과 1리 앞선다.

KIA에는 4경기가 남았다.

8일 하루를 쉬 뒤 9일 NC전을 치르고 광주로 돌아온다. 홈에서 10일 SSG, 11일 롯데를 차례로 상대한다. 12일 정규시즌 최종전에서는 LG와 만난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네일은 올 시즌 30경기에서 12승 7패, 평균자책점 3.53을 올렸다. 176이닝을 소화했고 퀄리티

스타트는 19차례다.

후반기에는 더 안정적이다. 12경기에서 7승 2패, 평균자책점 3.19로 힘을 냈다.

문제는 NC전이다.

네일은 올 시즌 NC를 상대로 4차례 등판해 1승 3패, 평균자책점 3.91을 남겼다. KIA도 NC에 약했다. 15차례 맞붙어 4승 11패에 그쳤다.

타선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NC 마운드를 상대로 팀 타율 0.226에 머물렀다. NC를 상대한 9개 구단 중 최하위다. 득점권 타율은 0.168까지 떨어졌다.

다만 최근 창원에서는 달랐다.

네일은 지난달 두 차례 NC 원정에서 모두 6이닝을 책임졌다. 12이닝 동안 내준 자책점은 3점뿐이었다. 평균자책점 2.25다.

특히 19일에는 6이닝을 3안타 1실점으로 막았다. 볼넷은 1개만 내줬고 삼진 6개를 잡았다. 승

리도 챙겼다.

당시 상대 선발은 좌완 에이스 구창모였다. KIA 타선은 5이닝 동안 8안타 4점을 뽑아냈다. 구창모는 패전을 안았다.

이번에도 같은 선발 맞대결이 펼쳐진다. 20일만의 리턴매치다.

구창모는 올 시즌 12승 7패, 평균자책점 4.01을 올리고 있다. KIA전에서는 5경기 2승 1패, 평균자책점 3.67이다. KIA 타선의 구창모 상대 타율은 0.243이다.

두 투수는 나란히 시즌 12승을 거두고 있다. 이번맞대결에는 각각의 기록이 걸려 있다.

구창모는 NC 토종 투수의 단일 시즌 최다승 신기록에 도전한다. 네일은 2024년 통합우승 당시 거둔 12승을 넘어 KBO 데뷔 후 개인 최다승을 노린다.

하지만 KIA에 중요한 것은 네일의 개인 기록보다 3위 수성이다.

긴 이닝 소화가 관건이다.

KIA는 9일부터 나흘 연속 경기를 치른다. 마지막에는 3위 경쟁 상대인 LG가 기다린다. 첫날부터 불펜 소모가 크면 남은 일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일이 오래 버틸수록 마운드 운용에는 여유가 생긴다.

NC전에서 타선이 고전했던 만큼 실점도 최소화해야 한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네일이 웃었다. 이번에는 3위가 걸렸다.

/주홍철 기자

‘가을야구’ 14일 WC로 스타트



내달 2일 한국시리즈

202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오는 14일 막을 올린다.

가을야구의 첫 관문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이다. 정규시즌 4위와 5위가 맞붙는다. 최대 2경기를 치른다.

4위 팀은 1승 또는 1무만 거둬도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5위 팀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한다. 경기는 모두 4위 팀 홈구장에서 열린다.

준플레이오프(17일부터 5전3선승제), 플레이오프(25일부터 5전 3선승제), 한국시리즈(11월 2일부터 7전 4선승제)에선 최소 하루가 이동일로 편성된다

연장전은 최대 15회까지 진행된다. 15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무승부로 처리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제외한 시리즈에서 무승부가 나오면 해당 시리즈 최종전 이후 추가

경기를 치른다. 무승부가 발생한 구장에서 이동일 없이 연전으로 진행된다.

한 시리즈에서 2경기 이상 무승부가 나오면 하루의 이동일을 둔 뒤 경기를 이어간다.

우천 등에 따른 경기 운영 방식도 정해졌다. 이번 포스트시즌에는 노계입과 강우폭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스펜디드 규정만 적용한다. 서스펜디드 경기가 성립하면 중단된 이닝과 관계없이 하루에 한 경기만 치른다. 기존에 예정됐던 경기는 다음 날로 밀린다.

다음 날이 이동일이면 해당 날짜에 서스펜디드 경기를 치른다. 이후 전체 일정은 하루씩 순연된다.

한국시리즈 홈 경기 편성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2-3-2 방식을 유지한다.

정규시즌 우승팀의 홈구장에서 1-2-6-7차전을 치른다. 플레이오프 승리팀 홈에서는 3-4-5차전이 열린다.

/주홍철 기자



기초 종목 육상이 살아야 광주체육 산다

육상 저변확대·꿈나무 발굴…광주체육회장배 제9회 청소년 육상대회 열려

광주시체육회가 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초·중학생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9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청소년 육상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체육회장배 청소년 육상대회는 2015년부터 기초종목 육상의 저변 확대와 우수선수 조기 발굴을 목표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열리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트랙과 필드 등 다양한 육상종목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올해 대회는 근대5종, 레슬링, 조정, 역도, 사이클, 스쿼시, 양궁 등 종목단체 스카우터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우수 선수 스카우트 및 잠재력 있는 신인 선수를 발굴하는 등 학교 체육과

전문 체육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경기장 주변에는 참가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11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신규 도입된 ‘빙상(소프트랙)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동계 스포츠의 기본기와 적응 훈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청소년 육상대회는 단순한 경기대회를 넘어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복지이자 교육의 장”이라며 “기초종목인 육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우수 체육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 체육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종기자



“다시 하나로”… 통합의 새시대 함께 열자

제107회 전국체전 참가 광주·전남 선수단 공동결단식



JEJU 2026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전남선수단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체육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사진)

광주·전남도체육회는 8일 한국에너지공단 대강당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전남 광주선수단 공동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 양 지역 종목단체 회장과 육상학교장, 임원 및 선수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선수단의 선전을 함께 기원했다.

공동 결단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참가계

획 보고, 선수단 훈련 영상 상영, 선수단기 전달, 격려사와 축사, 양 체육회장 인사말, 격려금 및 체육성금 기탁, 응원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양공 국가대표 오예진(광주은행 테니스양궁단)과 근대5종 국가대표 서창완(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 선수단을 대표해 선서를 하며 새로운 통합의 시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공동 결단식을 마친 광주·전남선수단은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한편,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뜻깊은 대회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전국체전은

40년 가까이 이어온 광주·전남 체육이 통합이라는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뜻깊은 대회”라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광주 전국체전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체육권역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체전은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무대”라며 “특히 이번 대회는 전남과 광주가 각자의 이름으로 출전하는 마지막 전국체전인만큼 선수 여러분에게도 더욱 특별하고 의미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국체전이 전남과 광주 체육이 함께 걸어온 시간을 뜻깊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체육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게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종 기자

‘28경기 무승’ 잔혹사 끝는다

광주FC, 오는 11일 안방 울산戰



GWANGJU

3주간의 A매치 휴식기를 마친 광주FC가 삼기일전 각오로 홈팬들 앞에 선다.

광주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HD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31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28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사상 초유의 ‘승리 가뭄’에 시달리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광주는 휴식기 동안 빠른 공수 전환과 빌드업 등 팀의 강점을 더욱 가다듬는 한편, 그동안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직력을 끌어올리며 시즌 막판 반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전력에도 힘이 더해진다. 수비의 핵심 반흐른스벤이 부상에서 회복해 출전을 준비하고 있어 수비진에 안정감을 더할 전망이다. 부상에서 복귀한 문민서도 점차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문민서는 올 시즌 울산과의 두 번째

맞대결에서 동점골을 기록한 좋은 기억을 살려 올시즌 2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한다.

공격진을 이끄는 신창무와 최경록 역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이데일과 바 루아로 이어지는 외국인 공격진도 빠른 공격 전개를 앞세워 울산의 골문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울산이 올 시즌 상위권 순위에 비해 다소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광주는 정교한 빌드업과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의 빈틈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오직 승리다. 3주간의 재정비를 마친 광주는 홈 팬들 앞에서 절실함과 투지를 모두 쏟아내 긴 무승의 사슬을 끊겠다는 각오다.

/박희종 기자